

대원정사 대작불사
 대원불교 조계종
 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났다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를 기증 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종파초월 종교간 대화
 27일 태국서 국제회의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와 지구화에 대한 종교적 대화를 나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종교와 세계화에 대한 종파를 초월한 국제적인 회의'에는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을 비롯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지구화 시대에 종교의 다양성과 종파를 초월한 관계 △지구화 시대에서의 종교개혁과 재건 △종교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역사적 조망(사례연구) △문화 간 종교 간의 소통과 변화에서 방법론적이며 철학적인 논점들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도로 대통령이 해결을”

조계종 총무원장·교구본사 주지 '공약 이행' 촉구

국민대토론회 성과없이 끝나... 12일 광화문서 범불교대회

불교계 및 환경·사회단체와 정부가 7년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 그러나 결국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노선 재검토위 합의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관통도로 백지화를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된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24개 교구본사 주지들은 노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법장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연과 생명, 수행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중립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하게 된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시절 관통도로 백지화를 불교계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에도 1,300명의 불교계 지도들 앞에서 공약이행을 재천명한 바 있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정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중대한 항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조계종 공대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의 반불교 행위 규탄 및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 촉구 범불교대회’를 개최하고 노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6월 30일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대안노선 검토지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총리의 책임과 그 배후에 대한 철저

한 조사, 관계자의 문책이 있을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6월27일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관련기사 5·13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공약을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세계 연꽃축제 개막

삼육리조트(사장 김건희)가 개최한 제1회 세계연꽃축제가 6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 심대평 총부도지사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9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연꽃축제에는 3500여종의 연꽃 1200여점이 전시된다. 사진 오른쪽 세번째부터 강응철(원불교교정원장), 성무용(천안시장), 법계 스님(충남 종교인협의회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 사장), 서정민(현대불교신문사 이사). 연꽃축제 관련기사 32면 사진=박재란 기자

원각사지 인근 대형 오피스텔

출토 매장문화재 신고않고 공사강행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땅 속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도 건축공사가 강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3일 사적 354호인 서울 종로구 원각사지에서 16m 떨어진 곳에 신축되고 있는 대형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9층) 건축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보호법 43조(발견신고)에 따르면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프크레인으로 장대석과 조석을 파내는 장면과 야간에 물레이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8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유적의 걸작 앙코르 와트가 숨쉬는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제3의 도시 시엠펜을 가로지르는 시엠펜 강에 놓여진 화석 아치형의 다리를 이곳 사람들은 ‘한국 다리’ 또는 ‘조계종 다리’라 부른다.
 캄보디아에 ‘조계종 다리’가 세워진 것은 지난 2001년. 이 다리는 수도 프놈펜과 시엠펜 인근에 위치한 앙코르 와트를 연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도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조계종이 이 다리를 놓아주게 된 것은 국민의 80%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의 경제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줌으로써 불교 형제국가로서의 우애를 나누자는 뜻에서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2일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에

모인 각 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5월 막대한 규모의 수재물 입은 스리랑카를 돕기로 뜻을 모았다.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
 는 가운데 교구본사들이 동참키로 함으로써 스리랑카 수재물 돕기는 훨씬 더 활기를 띠게 됐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스리랑카 불자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불자들이 도움을 주자”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계종 다리’를 말하곤 한다고 전해진다. 이곳에 몇 십 십개의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포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돕는 불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리랑카에 또다른 ‘조계종 다리’가 세워지길 기대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전주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8월 4일부터 인터넷·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3차 교육이 전주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정: 2003년 8월 4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교육장소: 전주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63-230-2821)
 ■수강료: 무료(교재비 6천원 본인부담)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전박지사
 지사장 직선 063-255-2274
 ■모집 인원: 15명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가자!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적멸보궁 참배하며 신심도 키우고
 7월 22-24일
 사자산 법흥사·백덕산 관음사
 ◆일정: 2003년 7월 22일(화)~ 7월 24일(목) 2박3일
 ◆장소: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 백덕산 관음사 일대
 ◆대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의전화: 02) 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발: 7월 22일 오전 10시 종로 조계사 앞
 ※도착: 7월 24일 오후 6시 종로 조계사 앞
 ●추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찬: (재)보덕학회, 현대불교 신학회
 ●후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총무원, 한미음선원

“불교흥망 스님들에 달려있다”

법장 스님, 주지연수회서 수행자 본분 강조
 “불교가 흥하고 망하고는 스님들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 밖에 다른 결론은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3일 중앙승가대에서 시작된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회에서 치사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치문>에 나오는 장로자각선사 ‘귀경문(龜鏡文)’의 한 구절인 ‘법문흥법(法門興廢)·승중법중(僧重法重) 승경법경(僧輕法輕)’을 인용하며, 거듭 ‘철저한 수행자의 본분’을 역설했다.
 이 말은 ‘불교가 흥하고 망함이 승려들에게 달려있다. 승려들이 진중하게 행동하면 불법도 진중해지고, 승려들이 경거망동하면 불법도 경법당한다’는 뜻이다.
 한국불교(조계종)가 이 사회와 중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도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도’가 아닌 ‘우리 자신’(스님들의 안일과 나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의 반불교 행위 규탄 및 북한산관통노선 폐기 촉구 범불교도 대회

- 일 시: 불기 2547(2003)년 7월 12일(토) 오후 2시
- 장 소: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 주 최: 불교법학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의 훼손행위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전 지도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원로회의의 유시를 받들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하고, 자연과 생명 그리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해왔다. 북한산 관통로를 뚫는 행위는 영산의 정기를 끊어 민족혼을 죽이고, 한국불교의 수행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훼손행위와 다름없다는 원로회의의 유시에 따라 자연과 민족문화를 애호하는 시민환경단체들과 더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불자들이 국민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불교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훼손행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을 부여받은 국무총리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그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불교계 제1공약으로 약속하였고, 당선후에도 1,300여명의 불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공약이행을 재천명하신 바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이 2,000만 불자와 약속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마저 관통을

반대하는 다수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이행되지 않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다수 의견마저도 묵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번 훼손행위와 불교계 공약 불이행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의 교구 본사와 불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행자인 스님들을 비하하고 불교계를 음해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유포한 훼손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전모를 밝히고 공개사과하라.
 하나, 훼손을 자행하고 중립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을 배제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교계 공약사항인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라.
 현 정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교계에 대한 폄하와 훼손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 본말사와 불자들의 중대한 항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47년 7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참여정부는 불교계 공약을 이행하고 관통노선 폐기하라! 불교 비하 관통노선 강행 고건총리 사과하라! 훼손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하라! 노선재검토위원회 다수의견이다! 관통노선 폐기하라!